

새벽종

2025 11+12 제23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Future 미래로!



THEME

우리의 내일을 밝히는 힘, 새마을운동

손을 맞잡고 마을을 가꾸며 이웃의 삶을 돌보는 실천은
또 한번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나누며,
또 한 걸음,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 ▶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 📷 instagram.com/letssaemaul
- 📘 facebook.com/letssaemaul
- 📝 blog.naver.com/letssaemaul
- 🗣 pf.kakao.com/_zNxknT

우리다

14

반가운 올림

넘치는 활력과 개방적인 문화로
새로운 내일을 열다

06

새마을 줌인

55년의 새마을정신, 미래로 비상하다

10

새벽종 소리

새마을운동이 걸어온 길
2025 새마을운동 키워드 뉴스

18

새마을운동 일기

김치 한 포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

깨우다

28

청년 새마을 특

서로의 문화를 품고 다름을 잇는 청년들
광주광역시 대학새마을동아리 ‘초아’

20

새마을 인터뷰 1

마을을 밝히고 온기를 더하는
태안군의 등불들

24

새마을 인터뷰 2

세상 가장 따뜻한 손수레를 끌고,
마음을 나누는 부부

32

지구촌새마을, 함께

- ① 키르기스스탄 시범마을 현장방문
- ② 새마을운동 해외결연 후원사업
- ③ 2025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장관회의



Cover Story

올해에도 누군가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쓸고, 먼저 이웃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나누고, 흉당물 속에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워 올린 손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 마을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은 또 다른 이웃에게 이어졌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무엇이 내일을 바꾸는가. 그 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정신, 함께 살아가는 힘 안에 놓여 있습니다.

만나다

38

섬표 여행

바람이 불어오는 곳,
겨울의 제주도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나다

42

생생정보

AI 시대 생존 기술,
잘 묻고 잘 쓰고 잘 거르기

44

새마을 포커스

57

새마을 라운지

발행일 2025년 11월 25일 |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 발행인 김광림 |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 광고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 구독·주소변경 해당 시군구새마을(지)회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55년의 새마을정신, 미래로 비상하다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열정을 나눴다. 2025년 11월 18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올 한 해 각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지도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선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새마을정신을 다시 새기며,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부심의 현장을 소개한다.

글. 윤민지 사진. 홍민기

2025

새마을운동과 함께 여는 미래 비전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5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지난 11월 18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7,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녹색·건강·문화 새마을운동’을 2025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지향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함께 모여 내일의 희망을 나눈다

대회가 열린 11월 18일, 영화의전당은 이른 아침부터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모여든 새마을지도자들로 북적였다. 새마을기를 따라 입장하는 참가자들과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이들, 곳곳에 마련된 어묵과 커피 같은 따끈한 간식, 다양한 참여 이벤트까지 더해지며 본 행사 시작 전부터 장소 전체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식전 공연에서는 가수 손빈아 씨가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새마을지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지도자들은 함께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한자리에 모인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출했다.

본행사가 시작되자 내빈들이 레드카펫을 따라 입장했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새마을지도자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이어 상영된 ‘2025 보람의 현장’ 영상은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며 지도자들의 마음에 깊은 자부심을 안겼다.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지역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은 지도자들의 사명감 덕분에 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활활 타올랐다”라며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의 규범이 되어 인류 모두가 행복하고 번영하는 ‘상생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환영사에서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성공을 넘어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우리의 약속”이라며 새마을정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헌신의 빛을 밝힌 영예의 순간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80만 새마을지도자를 대표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지도자들에게 영예로운 포상이 수여됐다.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에게 수여하는 정부훈장으로, 올해는 양윤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과 김창기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

회 회장이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받으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2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헌신을 인정받아 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행사장에는 큰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고, 지역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순간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새마을정신을 전 세계와 나누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때”라며 “모든 이들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희망과 기회로 가득할 것”이라고 전해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내일로 향하는 새마을운동

이날 하이라이트는 단연 ‘희망의 비상’ 퍼포먼스였다. 김광림 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오르자, 7,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은



모두가 하나되어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비상!”이라는 외침과 동시에 희망을 상징하는 폭죽이 터지고, 노란색과 초록색 종이 비행기 수천 장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갈 새마을운동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대회는 참석자 전원이 새마을노래를 제창하며 뜨겁게 마무리됐다.

지난 55년 동안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날의 울림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의 성과를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갈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비전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



새마을훈장

자조장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장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봉사, 환경정비와 돌봄운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을 전개하며 공동체 화합과 지역사회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장
지구촌새마을운동 및 이웃사랑 나눔활동 등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실천에 적극 기여함

협동장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지부회장
새마을작은도서관 지원, 피서지 문고운영, 글림 문화 경진대회 및 독서경진대회 개최, 인문학 기행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함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강원특별자치도 협의회장
직장·공장 새마을조직 구성 및 활성화, 지역문고사업 활성화, 해외도서보급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 무안군협의회장
생태하천 복원과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청소년 보호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충청북도 충주시 새마을부녀회장
재활용센터 운영, 쾌적한 환경 조성, 재활용품 모으기, 피서지환경안내소, 농촌일손 돕기, 취약계층 도시락배달 등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

근면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부녀회장
해외 희망나눔사업, 탄소중립실천, 환경정비, 숨은자원 모으기, 다문화여성돌봄 등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돌봄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새마을회장
새마을 친환경방역, 성내천 가꾸기, 어르신 경로잔치, 집 고쳐주기, 김장나눔 등 실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앞장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



새마을운동 경상남도 합천군지회장
해외협력사업, 꽃길 조성,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숨은자원 수거, 아름다운 합천가꾸기, 조직연대 등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새마을회장
자원재활용 운동, 환경정화 활동, 탄소중립운동, 이웃사랑 나눔운동,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시민의식 고양, 일선현장문화 증진



새마을지도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협의회장
하절기 방역봉사활동,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무료급식봉사,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새마을포장



새마을운동 평안북도지회장
이북도민행사 봉사활동, 새마을통일동산 가꾸기, 농촌일손 돕기, 통일후고향재건을 위해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등 새마을운동을 실천함



새마을문고중앙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회장
지역사회 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 향상, 공동체 정신 활성화와 독서 문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구리시새마을회장
취약계층 밀반찬 봉사, Clean 실개천 가꾸기, 친환경 방역,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경로잔치 등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새마을부녀회장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반찬나눔, 사랑의 김장 나눔, 이동빨래봉사, 마을회관 식사대접 및 청소, 재난지역 복구 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 계양구협의회장
집 고쳐주기, 김장 나눔, 반찬나누기, 경로당 위문,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등 지역사회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함

국무총리 표창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협의회장
도로변 풀베기 및 무연고묘 별초, 숨은자원 모으기, 재난재해 복구활동, 김장 나눔, 쌀 나누기 봉사를 꾸준히 전개함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새마을부녀회장
탄소중립 실천과 나라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로효친 실천과 소외계층 지원 활동, 지역 축제 봉사 등 나눔과 공동체 정신 확산에 기여함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2동 새마을부녀회장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내 집 앞내가 쓸기, 해맞이 떡국 나눔, 태극기 달기 운동, 자원재활용 운동 등 새마을 활성화에 기여함



새마을문고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탄방동분회장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 독서프로그램운영으로 국민독서경진대회, 피서지문고 운영, 지혜의 샘물 책방간 등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함

새마을운동이 걸어온 길

키워드로 보는 2025 새마을운동

나눔의 마음에서 비롯된 따뜻한 손길, 지역을 잇는 연대의 손길,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청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 그리고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간 지구촌 새마을운동까지. 2025년의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게 비췄었다. 한 해 동안 가장 빛났던 현장의 순간들을 '키워드'로 모아 돌아본다. 현장에서 쌓인 땀과 정성, 그리고 내일을 향해 준비해 온 변화 속에서 오늘의 새마을운동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살펴보자

글. 편집실



나에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나눔

#어르신 아·미용봉사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장 및 반찬 나눔 #재난·재해 복구 활동



경상남도새마을회 '찾아가는 어르신 아·미용 봉사'



전라남도새마을회 '사랑앓 보금자리 고쳐주기'

한 해를 돌아보면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순간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살피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시간들이다. 새마을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장 한 포기, 이웃을 위해 마련한 반찬 한 통, 넓은 집을 고쳐준 따뜻한 손길은-모두가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새마을운동은 언제나 우리 곁을 돌아보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

아 안부를 묻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을 챙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가장 먼저 달려간 마음들이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실천은 서로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됐다. 나눔을 통해 마을은 더욱 단단해졌고, 보살핌을 통해 지역은 따뜻한 공동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형성했다. 새마을운동은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함께 움직일 때 열리는 새로운 길

#연대

#산불, 수해 피해 복구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태극기, 새마을기 달기
#사랑의 헌혈 운동



1. 대구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
2. 충청남도새마을회 '수해지역 긴급 구호 활동'

서로 다른 이들이 마음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새마을운동의 현장에서는 세대와 지역, 기관과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으며 연대의 폭을 넓혀갔다. 사람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일손을 돕고, 농촌은 다시 도시의 마을 축제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도농 교류가 이어졌다. 시·군·구 간 자매결연을 기반으로 한 교류도 활발했다. 함께 김장 나눔을 열고, 재난 발생 시 인력과 물품을 나누며 '함

께 책임지는 지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행정기관, 적십자,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해 집수리, 방역, 취약 가구 지원 등 필요한 현장을 함께 챙기며 새마을운동을 넘어선 기관 간 연대도 한층 깊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연결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은 한 해 동안 수많은 현장을 지탱해 온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다. 연대의 가치는 누군가의 손길에 더해져 또 다른 이웃에게 닿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퍼져 나가며 더욱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푸른 내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실천

#탄소중립

#우리 동네 방역 활동 #숨은자원 모으기
#국토대청결 운동 #생태 하천 복원



1. 강원도 속초시새마을회 '아이스팩 선별·세척·나눔'
2. 직장·공장 경상남도 김천시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새마을운동의 환경 실천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주민 스스로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고, 하천과 산책로의 쓰레기를 주워내며, EM흙공을 던져 물길을 정화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을 살리는 주체가 되는 경험을 선사했다. 작은 행동이 모여 더 푸른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한 순간이었다. 곳곳에서는 하천 수질 개선과 쓰레기 줍기, 환경정화 활동,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분리배출 교육, 탄소중립 캠페인 등이 이어지며 마음을 모은 실천이 확산됐다. 올해의 작은 실천과 변화는 내일의 지속가능성을 준비하는 힘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탄소중립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가 밝히는 변화의 불빛

#청년

#어르신 아·미용 봉사 #대학생 해외봉사단
#청년과 함께하는 농촌일손 돕기
#MZ새마을 Fiestar: 미래로! 세계로!



대구광역시 한국폴리텍6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 '사랑듬뿍 힐링 족욕 행사'



2025 캄보디아 새마을 해외봉사단

새마을운동의 여러 현장에서는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새마을동아리 등 청년들의 열정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일어났다. 어르신 아·미용봉사와 농촌일손 돕기, 지역 환경정화 프로젝트 등 그들의 방식으로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움직임은 새마을운동의 미래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청년들의 새마을정신은 해외로도 뻗어나갔다. 지난 여름 캄보디아로 떠난 2025 캄보디아 새마을 해외봉사단은 14박 15일간 현지 마을 환경 정비, 위생 교육, 문화 교류 등 주민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펼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단순히 봉사에 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새 시대의 새마을운동을 이끌었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 활동한 경험은 지역에도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남겼다. 청년 새마을운동은 미래를 다시 밝히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젊은 세대의 감각과 에너지가 더해지며 오래된 가치가 새로운 언어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머나먼 곳까지 이어진 새마을정신

#지구촌

#새마을교육 초청 연수 #2025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2025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황 모니터링

새마을운동이 만든 변화는 국경 너머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멀리 떨어진 나라, 시차마저 다른 작은 마을에서도 지난날 우리와 같은 새마을운동의 숨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에서는 과거 대한민국이 그랬듯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회관을 세우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새마을지도자 교육

을 통해 마을이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여러 나라의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수원을 찾아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며, 각자의 지역에 적용할 새로운 모델을 고민했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길이 더 멀리, 더 넓게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정신을 공유하는 나라를 하나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



2025 동티모르 초청 새마을교육



온두라스 엘 로데오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 면담

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는 세계적 네트워크 '새마을운동글로벌 리그(SGL)'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 새롭게 합류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해외아동 결연 후원금 전달' 사업을 시작하며 지구촌

아이들의 작은 꿈이 더 멀리 뻗어가도록 길을 열기 시작했다. 이 흐름 속에서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개발 협력이나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치의 교류로 자리매김했다.

내일의 새마을운동을 향한 다짐

#미래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운동 55주년
#어린이 독서 교실 #새마을교육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새마을교육 현장'



부산광역시새마을회 '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

올해는 새마을운동 55주년이라는 뜻깊은 이정표 속에서 새마을가족이 함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을 모은 한 해였다. 새마을운동 55주년 기념식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확장할 것인지 깊이 논의됐으며, 각 지역에서도 '새마을의 날'과 55주년을 기념하며 다가올 내일을 향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졌다. 지역에서는 회원 배가와 조직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졌다. 지도자 교육 역시 한층 강화됐다. 현장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연수와 사례 공유가 이뤄졌고, 미래세대를 향한 준비도 놓치지 않았다. 새마을문고는 어린이 독서교실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러한 흐름은 모두 미래의 새마을운동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기존의 가치를 지키되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고, 세대와 지역을 잇는 혁신을 시도하며, 더 넓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모여 오늘의 새마을운동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축적된 변화들이 내일의 새마을운동을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 🌱

넘치는 활력과 개방적인 문화로 새로운 내일을 열다

백옥자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



지난 11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 커다란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함께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대회는 활기 넘치는 부산의 문화와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부산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기 위해 앞장선 백옥자 부산시새마을회장을 만나 부산시새마을회의 성과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김민진 사진. 김병구

부산만의 매력을 담은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세계적으로도 영화, 관광, 조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며, 각종 국제 콘퍼런스와 글로벌 행사가 자주 열리는 활력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함성이 끊이지 않는 도시 ‘부산’에서 지난 1985년과 2017년에 이어, 7년 만인 올해 다시 한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11월 17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도시 전체가 가진 활력과 다채로운 문화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도자들의 애정과 열정이 부산 거리 곳곳을 가득 채웠다.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부산시새마을회 백옥자 회장은 이번 대회의 핵심 키워드를 “함께하는 감동” 그리고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크고 화려한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모든 새마을지도자가 주



2025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 김광림 중앙회장, 백옥자 회장(왼쪽 네 번째)



부산시새마을회 사무국 직원들과 회의하는 백옥자 회장

인공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서로 돕고 웃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새마을운동인 만큼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자 했죠. 또 전야제는 부산의 대표 명소인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본행사는 복합문화공간인 영화의전당에서 진행한 만큼 글로벌 허브 도시인 부산의 매력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따스한 정(情)을 전하며 미래를 만드는 부산

부산시새마을회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뿐만 아니라 최근 ‘사랑의 김장 나누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사업을 연이어 진행하며 그야말로 숨 가쁜 한 해를 보냈다. 온기 나눔,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과 부산시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와 함께한 탄소중립 현장강사 프로그램이다.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 사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농촌일손 돕기

부산시새마을회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과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전하는 이 사업은, 지금도 부산시 16개 구·군을 주 5일 순회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깨끗한 세탁물과 함께 따뜻함을 전달하는 중이다.

탄소중립 현장강사 프로그램은 청소년 환경체험교실과 연계된 사업으로 부산시새마을동아리연합회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학생 회원 50명이 이틀간 총 10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은 뒤 초·중학교에서 직접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의 현장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백옥자 회장은 이 사업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새마을지도자를 키우는 마중물”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부산에는 향후 든든한 새마을지도자로 성장할 청년 인재가 많습니다. 전국 80여 개의 대학새마을동아리 중 11개가 부산에 있을 만큼 부산 청년들 역시 새마을운동에 진심이지요. 대학새마을동아리가 처음 태동한 곳도 부산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새마을지도자로 성장할 젊은 세대들의 활동과 참여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 현장강사 프로그램과 대학새마을동아리 활동은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부산시새마을회는 1% 나눔운동 후원회원 모금, 우리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

이웃돌봄 봉사대 쪽방촌 지원사업 등 지역에 기분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게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미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의 마을과 협약을 맺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식수 시설,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부산 새마을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이 탄생했다. 나아가 올해에는 필리핀 새마을회관과 새마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 준비에도 착수했다.

새마을운동의 산증인과 함께 내일을 향해

2024년 부산광역시새마을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한 백옥자 회장은 1981년 부산진구 범천2동부녀회 활동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지도자의 길을 걸은 인물이다. 무려 45년 가까이 새마을운동과 함께하며 그 역사를 몸소 지켜본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진구 범천2동부녀회장, 부산진구부녀회장, 부산광역시부녀회장,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그리고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까지 그의 이력은 한 장의 이력서로 다 담기 어려울 정도다. 작은 단위의 지회부터 광역 단위의 조직, 중앙회원 단체를 이끌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백 회장에게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읍·면·동 새마을회부터 광역시·도 새마을회의 특성과 조직의 결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도자와 사무국 직원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줄 아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곳곳을 누빈 젊은 시절부터 삶의 대부분을 새마을운동과 함께해 온 백옥자 회장에게 새마을운동은 어떤 의미일까.

“제게 새마을운동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로움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만족감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숭고한 행동이지만,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마을이 바뀌고 세상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한다면 누구나 새마을운동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며 겸손히 웃는 백 회장은 부산시새마을회장으로 취임한 지난 1년 동안 부산시새마을회의 저력을 다시금 실감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특히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는 지도자들과 사무국 직원들 덕



부산시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과정



2025 사랑의 김장 나누기

분에 4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단 하루도 열정이 식어본 적이 없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음이 파스해지는 연말, 백옥자 회장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변화는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새마을가족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새마을운동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한 해 동안 묵묵히 땀 흘린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격려이자 응원의 말이기도 하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헌신과 연대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부산시새마을회. 2026년에도 부산 곳곳에 새마을운동의 온기가 퍼져 행복한 변화가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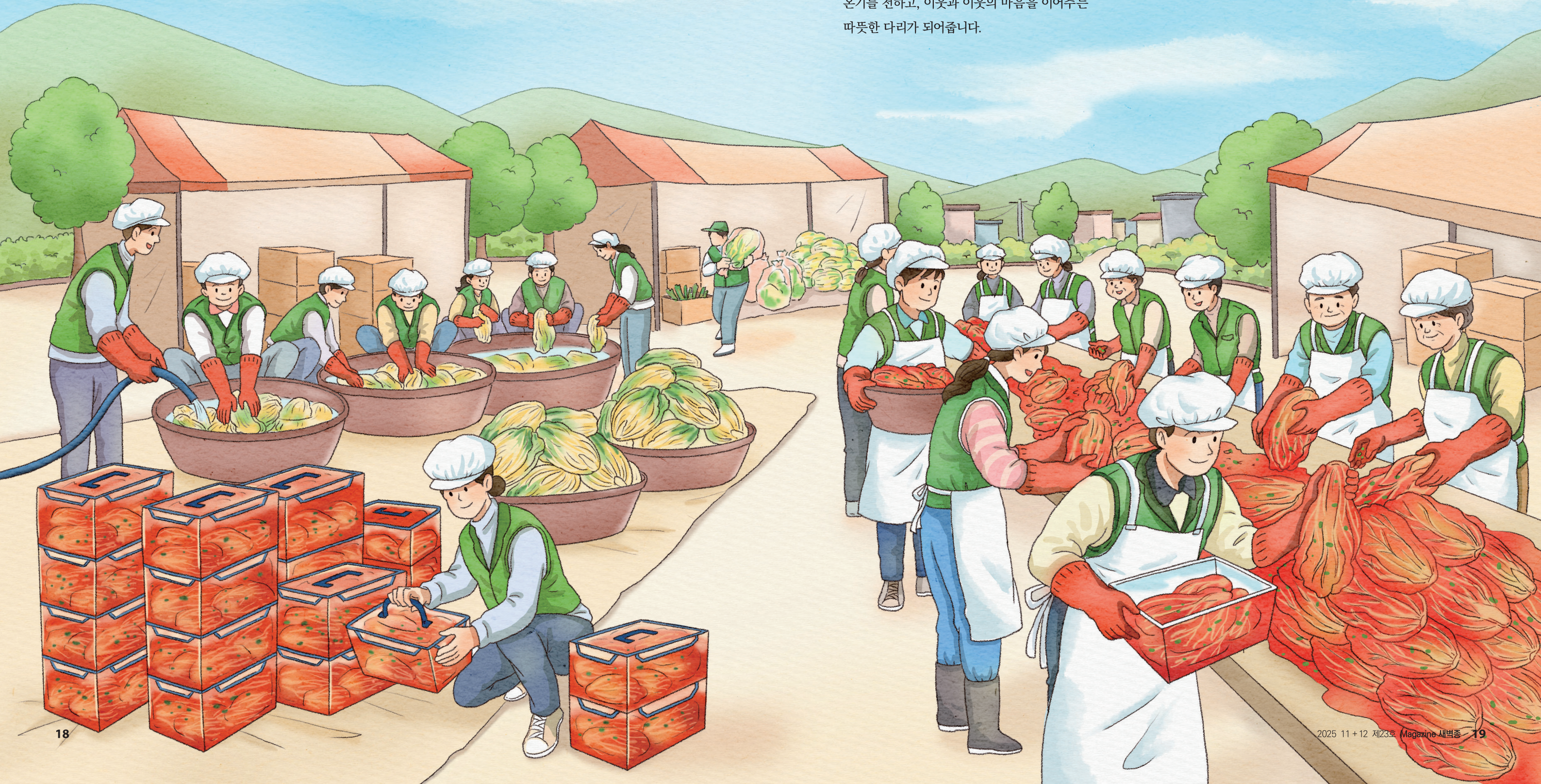
김치 한 포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림. 전선진

찬 바람이 부는 겨울,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해 김장을 담그는 손길마다 이웃을 향한
새마을가족의 따스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김장 한 포기에 진심을 담은 새마을운동,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김장 나눔은 소외된 이웃의 식탁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이웃과 이웃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마을을 밝히고 온기를 더하는 태안군의 등불들

충남 태안군지회

충남 태안군지회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아직 별빛이 남아 있는 새벽부터 시작된다. 고요한 농촌 마을의 공기를 가르며 회원들이 하나둘 골목길로 나서고 누군가는 논두렁과 밭고랑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또 누군가는 오랜 세월 쌓인 어르신 맥의 묵은 자취를 정성껏 치운다. ‘별 보고 나와 별 보고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 무렵, 태안군지회 회원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깨끗함이 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번져간다.

글. 장희주 사진. 전경민



홀몸 어르신 가구의 쓰레기 수거

월 1회, 마을을 빛나게 하는 다정한 손길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날 오전, 태안군지회 회원들이 태안읍 다목적회관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날은 ‘농촌 쓰레기 수거의 날’로, 한 달에 한 번씩 8개 읍·면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마을 곳곳의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정화하는 날이었다. 갑자기 서늘해진 공기에 회원들은 두꺼운 옷깃을 여몄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회원들은 짧은 회의를 마친 뒤, 각자 맡은 구역을 배정받아 마을 구석구석으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하천을 따라 걸었고, 또 누군가는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길로 향했다. 한 손에는 집게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포대자루를 든 채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는 손길이 이어졌다. 농촌 쓰레기 수거 사업은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마을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다. 태안은 22개의 해수욕장과 수십 개의 항·포구,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자리한 곳으로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고장이다. 사계절 내내 여행객이 찾는 아름다운 바다 도시이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쓰레기와 환경 부담도 크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관광지를 비롯해 논과 밭, 그리고 하천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오염이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낳는다.



홀몸 어르신 가구 마당 청소



마을 안길 쓰레기 줍기

게다가 태안의 농촌 마을은 고령 인구가 많아 거점 수거장까지 쓰레기를 옮기기가 쉽지 않다. 임병윤 지회장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있다”라며, “어르신 중에는 쓰레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부득이하게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잦고 이로 인해 산불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태안군지회가 직접 농촌 쓰레기를 수거해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취지를 덧붙였다. 이렇게 태안군지회의 손길은 해안가에서 마을 안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태안군지회의 하루는 쓰레기 수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부녀회에서는 홀몸 어르신을 1:1로 돌보며 수시로 안부를 살피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나 각종 위험 상황을 미리 예방할수 있도록 돕는다. 김장 나눔과 밑반찬 지원 같은 이웃 돌봄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태안은 해안선이 길게 이어진 지역이다 보니 때때로 실종 신고나 자살 고위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태안군지회는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게 수색에 나서며 지역 안전망 역할을 다한다. 최근에는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의 유해 봉안 사업을 주관하며 지역 역사 기념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마을을 지키는 일, 생명을 살피는 일, 그리고 역사를 잇는 일까지. 태안군지회의 손길은 그만큼 넓고 깊다.

구불구불 도랑길을 따라, 굽이굽이 마을까지

이날의 현장은 농촌 쓰레기 수거에 집중해 진행됐다. 세 팀으로 나누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마을을 지켜냈다.

첫 번째 팀은 홀몸 어르신 두 가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오랜 세월 쌓인 묵은 짐과 생활 쓰레기를 치우고 넓은 집 안을 정리하며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트럭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구불구불한 도랑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넓은 마당을 지닌 오래된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르신은 환한 미소로 이들을 맞이했다. 따뜻한 인사를 나눈 뒤 회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 뒤편에는 언제부터 쌓였는지 알 수 없는 생활 쓰레기와 낡은 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회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없이 장갑을 끼고 집 안의 묵은 짐을 하나씩 바깥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차례 짐을 나르자 잠시 후 1톤 트럭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팀은 마을 주변의 논두렁과 밭고랑, 그리고 인근 산자락으로 향했다. 회원들은 집계와 포뎃자루를 들고 여러 명이 한 조가 되어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다. 논과 밭 사이에는 비닐 조각과 플라스틱, 병,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고 산속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기물이 흩어져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허리를 굽히고 집계를 든 손으로 하나하나 쓰레기를 주웠다. 혼자였다면

끝이 보이지 않았을 일도 태안군지회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어느새 깨끗한 풍경으로 변해갔다.

환경을 가꾸고, 사람을 잇는 새마을의 손길

지난해 시작된 농촌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이제 10개월째를 맞았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동안 태안의 농촌 마을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주민들의 마음’이었다. 임병윤 회장은 이 사업을 두고 “환경을 바꾸는 일인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얹어 쓰레기를 태우던 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세요. 조금씩 주인의식이 생기면서 마을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태안군지회에 가장 큰 보람이자 힘이 됩니다.”

태안군지회는 마을 구석구석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본 아니라 수거 이후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8개 읍·면별로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며 수거된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보관하고 숨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특히 이 공동집하장은 전국적으로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땀 흘려 모은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철과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되어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얻은 금액은 다시 지역 복지와 나눔 봉사에 쓰인다. 태안군지회의 손끝에서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이 선순환하는 따뜻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지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내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더 아름답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숲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적절히 스며들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들이 지나치게 뻗뻗하게 자라, 통풍이 어렵고 병해충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숲 가꾸기를 통해 단순히 주변을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무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며 마을 전체의 경관을 한층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방문객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이 가능했던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수년간 현장



모은 농촌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임병윤 지회장과 엄현숙 태안읍부녀회장, 전종선 태안읍협의회장

을 지키며 묵묵히 마을을 가꾸온 회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임병윤 회장은 회원들에게 언제나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

“좋은 국토와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든 회원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태안군지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새마을 가족들도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열린 봉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태안군지회도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윤 회장의 말처럼 태안군지회의 노력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다. 별빛이 채 가시기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하루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을을 밝히며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온기를 더해가고 있다. ☺

세상 가장 따뜻한 손수레를 끌고, 마음을 나누는 부부

경북 영주시새마을회
이대성·황영숙 지도자 부부



가진 것이 많아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가진 것을 나누어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다. 이대성·황영숙 지도자 부부는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조용한 선행이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힌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버려진 것에서 마음을 줍는 부부

이른 아침 8시 30분, 이대성·황영숙 부부의 하루가 시작된다. 두 사람은 손수레를 끌고 영주시 원당로 일대 골목을 천천히 돌며 골목 어귀마다 쌓인 폐지와 버려진 상자, 빈 병과 고철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챙겨 담는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물건이지만 이 부부에게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렇게 부부는 동네를 돌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삶의 무게를 손수레에 실어 나른다. 그들을 위해 누군가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미리 떼어내고 상자를 납작하게 접어 깔끔하게 포개 둔다. 부부는 그 작은 배려에도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라며 인사한다. 많이 모은 날이면 손수레 한 대에 실린 폐지만 해도 400킬로그램에 달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세상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진다.

하루 대부분을 나란히 보내는 두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한 팀’이다. 이대성 지도자는 손수레 앞에서 묵직한 짐의 균형을 잡아 끌고 황영숙 지도자는 뒤에서 산처럼 쌓인 폐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꼼꼼히 받쳐 든다. 손수레에 짐을 싣는 손놀림에도 세월이 빚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 굵은 끈을 손수레에 감아 단단히 묶은 뒤 이대성 지도자가 그 끈을 아내에게 건네면 황영숙 지도자는 그것을 받아 고리에 걸고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준다. 끈 하나를 주고받는 그 순간에도 서로의 손끝이, 시선이, 그리고 마음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대성 지도자



황영숙 지도자

“
남은 여생도
지금처럼 누군가를
돕고 기부하며
살아가고 싶을 뿐
”



그렇게 온종일 일해 손에 찢 돈은 고작 2만 원 남짓. 하지만 부부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 모은 수입은 ‘전부’ 인근 주민센터와 장학회 등에 기부하고 생활은 오로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로만 이어간다. 작은 집에서 부부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하루를 꾸려 간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소박한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대성·황영숙 지도자 부부에게 그것은 ‘가장 넉넉한 삶의 방식’이다.

받은 만큼, 다시 세상으로

이대성·황영숙 지도자 부부가 기부를 시작한 지는 어느덧 15년이 넘었다.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주는 삶’을 선택한 건 언젠가 자신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폐지를 줍기 전, 부부는 시장에서 배추와 고사리 같은 농산물을 팔며 살았다. 땅도 있었고, 집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동생의 빚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남은 건 6천만 원이 넘는 빚뿐이었다. 그 빚을 갚으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부부는 단 한 번도 기부를 멈춘 적이 없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부부는 담담히 그렇게 말한다.

빛더미에 오를 무렵 막 중학생이던 아들은 늘 전교 1~2등을 할 만큼 성실한 아이였다. 그러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부부는 아이의 학업을 이어가게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때 손을 내밀어준 곳이 바로 영주의 ‘향소장학문화재단’이었다. 아들은 재단의 장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대학까지 마쳤고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고마움 때문에 그들에게 기부란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한때 자신들이 받았던 온기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일이다. 받은 도움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고마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부부. 이대성·황영숙 지도자 부부의 조용한 선행은 어느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2024년에는 KT그룹 희망나눔재단으로부터 ‘희망나눔인상’을, 2025년에는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9회 청룡봉사상 인(仁)상’, 그리고 같은 해 GS칼텍스의 ‘참사람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하지만 부부는 상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할 뿐이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이대성·황영숙 지도자 부부

이어가는 것, 그것이 두 사람에게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부가 기부한 금액은 어느덧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의 정성은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과 청소년 보호관찰소, 지역 김장 나눔 행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장학금만 약 1,900만 원에 달하며 청소년 지원과 김장 나눔 등 봉사 활동을 모두 합치면 총 2천만 원 이 훌쩍 넘는다. 이대성 지도자는 “앞으로는 인재육성장학금만이라도 3천만 원까지 채워보고 싶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새마을정신으로 살아가는 부부

이대성·황영숙 지도자 부부는 온종일 폐지를 줍고 선행을 이어가면서도 영주시새마을회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봉사해 왔다. “처음엔 누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네요.” 이대성 지도자는 웃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부부는 바쁜 일상에서도 틈틈이 마을의 풀을 베고 방역 활동에

도 나선다. “우리가 바쁘니까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하죠. 그래도 저는 방역 기계가 있으니까 시장 안을 돌며 방역도 해요.” 그의 말처럼 두 사람의 하루는 늘 분주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새마을정신처럼 언제나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진심 어린 나눔은 지역 사회에도 오래도록 귀감이 되고 있다. “두 분은 정말 우리 새마을회의 자랑이에요.” 인터뷰 현장을 지켜보던 우영선 영주시새마을회 회장이 부부의 오랜 선행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이들이지만 거창한 꿈 같은 건 없다. 남은 여생도 그저 지금처럼 누군가를 돕고 기부하며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굳이 꿈을 꼽자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 그게 이대성·황영숙 부부가 바라는 삶의 전부다.

그렇게 부부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영주시 원당로 골목 어귀마다 놓인 폐지를 주우러 나선다. 좁은 골목을 가르며 나아가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고요히 빛난다. 그 주름은 고단함의 흔적이 아니라 나눔과 감사로 살아온 이들의 얼굴에만 피어나는 가장 환한 미소다. 그렇게 오늘도 부부의 손수레는 세상 가장 따뜻한 마음을 싣고 천천히 골목을 지나간다. 🌱

서로의 문화를 품고 다름을 잇는 청년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광주광역시 대학새마을동아리 '초아'



새싹이 자라 든든한 나무가 되듯, 새마을 청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광주광역시 대학새마을동아리 '초아' 회원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2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렸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어울림의 가치는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 이형주 사진. 최홍주



아이들과 함께 연을 꾸미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초아 회원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 대학새마을동아리 '초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임재훈입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아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활동에 참여했어요. 같은해 8월 해남군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때 쓰레기를 줍고 농사일을 거들면서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잘 살아보세'의 구호가 아니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기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임을 체감했죠. 새마을정신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살아 있는 정신'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대학새마을동아리 초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새마을동아리 초아는 어떤 곳인가요? 이름의 의미와 주요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초아'는 '풀의 새싹'을 뜻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작은 힘을 보태어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동아리 이름을 '초아'라고 지었습니다. 회원들은 광주 지역의 송원대학교, 광주대학교, 남부대학교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달 1회 이

상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주된 활동은 광주 시내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보호 활동과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마을을 찾아가는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아 회원들이 공유하는 새마을동아리 활동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초아'는 새마을정신을 청년 세대의 언어로 재해석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봉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이끌 저희 MZ세대가 직접 주도하는 '청년이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열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국 전통놀이 체험교실처럼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의 디지털·온라인 전환을 목표로 SNS를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마을정신을 새롭게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초청해 전통 민속놀이 체험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체험활동의 취지와 기획의도가 궁금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면서 '우리 모두 같은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 어린이들이 즐기던 딱지치기,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이들,
초아가 함께한 전통놀이 체험

광주광역시 대학새마을운동아리 초아의 임채훈 회장



함께 즐기는 윷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연날리기 같은 전통 놀이를 준비했고,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 언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준비도 했죠. 행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한 아이가 저에게 ‘형, 또 언제 만나요?’라고 묻는데, 그 순간 가슴이 정말 뭉클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진심으로 교감했다는 점이 의미 있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다문화 가구 수가 2023년 기준 8,700여 개에 이른다고 해요. 점점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아리 초아는 앞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광주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새마을운동아리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본래 의미가 ‘새로운 마을(공동체)’인 만큼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먼저 다가가 다문화가정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새마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와 관련한 초아의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넘어 부모의 본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초아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 중심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극기를 함께 그리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학습지도뿐 아니라 물놀이 같은 각종 체험 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잘 이어지고 소외 계층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새마을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다가서는 청년들의



밝은 미소로 내 지역의 쓰레기를 줍는 어린이들



동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패기와 열정을 지닌 세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새마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현실적인 요구를 세심히 살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문화적 교류를 병행한다면 지역사회에 더 깊은 울림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새마을운동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새마을운동 참여는 청년들에게 자율성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초아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초아’는 앞으로도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잘살기 운동’이자 새로운 마을(공동체)을 만들어가는 새마을운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아는 푸른 새싹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시범마을
현장 방문기

새마을운동, 중앙아시아 ‘알프스’를 품다

글. 조정범 기획경영국 기획예산팀장

중앙아시아의 심장, 키르기스스탄을 향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김광림 중앙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 임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이 키르기스스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장을 찾았다. 키르기스스탄은 동쪽으로 중국,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내륙 국가로, 남한 면적의 2배 크기에 달하며 국토의 9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로 불릴 만큼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생아에게서 몽골반점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런 공통점 때문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딘가 익숙하고 따뜻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이자 지구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국가로, 2017년부터 총 8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범마을 운영과 새마을운동 추진을 희망하는 국가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는 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시 전경 너머, 만년설이 내린 텐산(천산, 天山)의 환영을 받으며,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김광재 대사와 임소현 코이가 현지사업 소장을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임을 강조하고, 중앙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KOICA와의 연대협력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마을운동 해외 확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중앙회가 좀 더 발전적인 지

원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 규모나 교육훈련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희망이 스민 마을, 그리고 지도자들의 역량

8월 30일, 출장단은 만년설이 녹아 흘러 제주도의 3배 크기에 달하는 이식쿨 호수를 품은 탐가 마을과 아를리나에 마을이 있는 이식쿨주(州)로 이동했다. 해발 1,600m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이식쿨 호수 주변에는 살구 과수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범마을에 도착하였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전통복을 입은 주민들이 전통 음식과 환영 공연으로 출장단을 맞이했다.

각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연수원 교육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아를리나에 마을에서는 지역 학교의 교감, 영어 교사 등이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IT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업무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장하여 마을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들의 뛰어난 역량은 국내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다가왔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중앙회장은 올해 처음 중앙회가 추진하는 '지구촌 새마을 해외아동 결연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탐가 마을의 아슬벡 카디로프(13세) 아동에게 미화 300달러의 후원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현지 문화와 새마을 정신의 결합

9월 1일, 출장단은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지방자치청을 방문하여 바자르바예프 쿠다이베르겐 청장과 면담했다. 새마을운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역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기존 북부 지역 중심의 새마을사업을 남부 지역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청장은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협력 문화인 '아사르(Asar)'를 새마을운동에 접목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사르'는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을 나누는 공동체 협력 제도로, 우리나라 고유의 두레나 품앗이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제안은 현지 고유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접점으로, 앞



1. 환영 공연
2. 새마을운동 해외아동 결연 키르기스스탄 후원금 전달
3. 수도 비슈케크의 지방자치청 방문

으로 새마을 시범사업 확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외부의 원조를 넘어 현지 새마을지도자들의 주도적인 땀과 노력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현지 문화(아사르)와의 접점을 발견하고, 지도자들의 높은 역량을 직접 확인하면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하여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다. 🌍

지구촌 새마을가족의 ‘함께 잘사는’ 희망의 사다리

중앙회, 최초 민간주도형 ‘개인 대 개인’ 결연사업 시작

글. 안성일 국제협력국장



- 파푸아뉴기니 • 네본 테일러(Nebon Talyor)
- 키르기스스탄 • 아르주 칼리베크바(Arzuu Kalybekova)
- 탄자니아 • 인티자르 하마드 자디(Intithar Hamad Jadi)
- 파푸아뉴기니 • 완진 데이비드(Wanjin David)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미래 지구촌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해외에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가정의 아동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 세계 50여 개 새마을협력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아동들이 현지 새마을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그 나라의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180만 새마을회원 개인이 중앙회를 통해 전 세계 50개 새마을협력국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자녀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직접 후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추진해 온 기존의 해외 지원사업은 국가 대 국가, 또는 기관 대 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었을 뿐, 개발도상국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사업은 미비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회 최초의 민간 주도형 결연사업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중앙회가 플랫폼 역할을 하며 해외아동 등 취약계층과 국내 새마을지도자를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연결한다.

중앙회는 이러한 개인 중심의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여 해외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8개국 20여 명 아동에게 전달된 따뜻한 후원금

그리고 이어지는 결연

2025년 8월, 김광림 중앙회장은 결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며 후원금 500만 원을 직접 기탁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 후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는 8개국 아동 20여 명에게 전달됐다. 수혜 대상은 협력국의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자녀들이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피지, 미얀마,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부룬디,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이다. 지난 8월, 키르기스스탄을 찾은 김광림 중앙회장은 키르기스스탄 아동 2명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7개국 새마을협력관을 통해 전달했다.



동티모르 • 레티지아 고메스 소아레스(Letizia Gomes Soares)



미얀마 • 쏘 카웅 칸(Kyaw Kaung Kan)

중앙회는 결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7일까지 부룬디, 파푸아뉴기니, 탄자니아, 온두라스, 우간다 등 5개국 총 10명의 수혜 아동을 추가로 선정했다. 현재 중앙회와 시도 지부,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등을 대상으로 후원 신청을 받고 있다. 후원금은 수혜 아동들이 필요에 따라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해당 국가 출장 시 협력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후원이 만든 희망, 현지 지도자로서의 성장 발판

후원을 받은 탄자니아의 인티자르 양(11세)은 편모 가정에서 성장하여 늘 학비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후원금 덕분에 본인과 동생의 학비는 물론 교재와 교복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탄자니아 새마을협력관 아틱은 이 결연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틱 협력관은 앞으로도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통해 지구촌에 희망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연 대상 아동은 중앙회 국제협력국에서 국가별 협력관을 통해 접수된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 소속과 재학 여부, 학업 성취도,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광림 중앙회장은 전달식에서 “해외아동 결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구촌 새마을가족 자녀와 국내 새마을지도자 간의 결연을 통해 아동의 자립 성장을 지원하는 중앙회 최초의 민간 주도형 결연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수혜 아동들이 현지 새마을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지구촌의 소외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각국 협력관들의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구촌새마을로 희망을 이어가다

중앙회는 함께 잘사는 지구촌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해외 후원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엄선하고 그 결실을 웹페이지, 홈페이지 그리고 새마을운동 매거진 <새벽종>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와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180만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은 각자가 후원할 아동을 직접 선정하고, 각국 협력관을 통해 후원금을 책임감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지구촌 새마을가족 모두 ‘함께 잘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해외아동 결연 후원사업은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



‘잘 살기 운동’의 확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5주년이 되는 2025년.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두 번째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와 열두 번째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구촌 빈곤 해소와 국가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글. 장준철 국제협력국 사업팀장

마중물에서 강력한 동력으로: 새마을운동 성공의 비결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향약·두레·계 등의 공동체 전통 위에서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시작되었다. 정부는 시멘트, 철근 등 자재만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주민들이 마을 회의에서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고취하여 마을 스스로 발전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펼치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역시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측 지원과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단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가 2013년 최초로 기획되었다. 이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책화가 한국 새마을운동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경험에 근거하며, 궁극적으로 현지 정부와 주민이 함께하여 한국과 유사한 발전의 결실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관회의, 협력 의지를 다지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46개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총 35개국이 참석했다.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장관 또는 차관,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등 5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이 총 5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행사는 환영 만찬,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장관회의, 세미나, 환송 만찬,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기간 중 동티모르, 파나마, 케냐 등 7개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새마을운동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광림 회장은 장관회의 발제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중앙정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사업추진과 지원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방식, 마을주민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 소득증대와 연계된 사업 추진, 남녀 각 1인의 새마을지도자 선발, 국가 간 우수 사례 공유, 학생·청년의 새마을운동 참여 확대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파푸아뉴기니의 사례는 중앙·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다. 헬렌 아잇시 주한 대사는 지방정부가 시범마을 사업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년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국가 정책(National Ward Development Plan)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마라페 총리 역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국가를 변화시킨 모범사례’로 한국을 언급하며 국가 부흥의 벤치



마킹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중앙·지방 정부를 막론하고 강력한 의지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해법: 의식 개혁과 주민의식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총 33개국 대표가 발표했다. 각국의 농촌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성과가 공유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정신이 전 세계에서 통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새마을운동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의식 개혁이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근면·자조·협동하며 공동체 발전을 이끄는 첫걸음이 의식과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행동이 바뀌어 가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은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확연히 구분된다. 단순한 물적 지원이 수혜자들을 원조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방식이며, 이는 60여 년간의 공적개발원조(ODA) 경험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지 주민과 정부 공무원 모두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마을과 국가를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각국 농촌의 상황은 한국의 1960년대와 비슷하다. 대다수 국민이 농촌에 거주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 도로 등 인프라 부족과 생활시설 미비, 소득 창출의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성공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앞으로도 장관회의가 국가 간 상호 학습을 유도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어,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구촌 공동 번영’의 비전이 실현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사람들은 흔히 따뜻한 남쪽 나라를
꿈꾼다. 하지만 11월과 12월의
제주도는 마냥 따뜻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육지보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는 더 높게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겨울의 제주를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화려한 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채워진 ‘여백’과 ‘침묵’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이다.

여름의 제주가 에메랄드빛 바다와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면, 겨울의
제주는 차분한 사색의 공간이다.

오름의 능선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 소리,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한라산의 웅장함,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속삭임까지. 1년 중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겨울 제주로 심표 여행을
떠나보자.

글. 김성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겨울 제주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나다



은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산굼부리’ 대지 위에 펼쳐진 역세의 향연

제주의 가을과 겨울 사이, 가장 극적인 풍경을 꼽으라면 단연
산굼부리다. 해발 400m 고지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적인 오름
과 달리 용암이 분출하지 않고 폭발만 일어나 구멍이 뿔 뚫린
‘마르(Maar)’형 분화구다. 하지만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
은 지질학적 가치보다 눈 앞에 펼쳐진 광활한 역세밭이다.

겨울의 산굼부리는 말 그대로 ‘은빛 바다’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는 역세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일제히 몸을 눕히며 ‘쌩아아’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파도 소리와 닮았으면서도 더 건조하고
서걱거린다. 햇살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역세는 은색이었다가,
금색이 되기도 하고, 해 질 녘에는 붉은빛을 머금은 갈색으로 변
모한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의 능선
과 제주의 동쪽 오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역세밭 사이
를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 생각들도 바람에 실려 날
아가는 듯하다. 잎을 다 떨군 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듯,
우리 마음의 군더더기를 털어내기에 이만한 장소는 없다.

별이 내려와 잠드는 언덕, ‘새별오름’ 저녁놀이 지고 나면 시작되는 밤의 이야기

서부 중산간 오름 지대 중에서 으뜸가는 경관을 자랑하는 새별
오름. ‘초저녁에 외롭게 떠 있는 셋별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처
럼, 이곳은 해가 지고 난 뒤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물론 가파른 경
사를 올라 마주하는 낮의 풍경도 근사하지만, 겨울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간은 해 질 녘부터 밤까지다.



새별오름으로 향하는 길, 억새가 춤추는 들판 너머로 붉은 노을 이지면 세상은 잠시 숨을 죽인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켜진다. 겨울철 제주의 대기는 차갑고 건조해서 별을 관측하기에 더없이 좋다.

정상에 서서 고개를 들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수많은 이야기가 밤하늘에 흐른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우주의 신비로움 앞에서는 인간의 고민이란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인가. 새별오름의 밤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선물한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섬, ‘가파도’ 청보리 물결 대신 찾아온 겨울의 적막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남짓, 가파도는 한국에서 가장 키 작은 섬이다. 섬의 최고 높이가 해발 20m에 불과해, 섬 어딘에 서더라도 수평선이 눈높이에 머문다. 봄날의 가파도가 초록색 청보리 물결로 생동감이 넘친다면, 겨울의 가파도는 모든 것을 비워낸 ‘무(無)’의 미학을 보여준다.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겨울 가파도는 적막하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싫지 않다. 자전거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겨울 가파도에서는 페달을 밟는

속도조차 늦춰야 할 것 같다. 낮게 깔린 지붕들, 돌담 사이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그리고 거친 파도가 갯바위에 부서지는 소리가 전부다.

가파도에서 바라보는 제주 본섬의 풍경은 특별하다. 손을 뻗으면 달을 듯 웅장하게 솟아있는 한라산과 그 아래 웅기종기 모여 있는 산방산, 송악산의 실루엣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진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곳. 가파도는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 멈춰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붉은 잎과 하얀 눈의 경계, ‘한라산 탐방로’ 계절이 교차하는 숲길을 걷다

11월과 12월의 한라산은 두 개의 계절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아직 떠나지 못한 늦가을의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겨울의 냉기가 나뭇가지를 하얗게 얼린다.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영실 코스나 어리목 코스를 추천한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아래에는 낙엽이 폭신하게 깔려 있고 머리 위로는 앙상한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열린다.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졸참나무들이 마지막 빛깔을 뽐내고, 그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서리꽃(상고대)



은 보석처럼 반짝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쯤 마주하는 탁 트인 전망은 산행의 고단함을 단번에 씻어준다. 발아래 구름이 바다처럼 깔린 운해(雲海) 위로 솟아오른 윗세오름의 풍광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땀 식은 몸에 들이키는 차가운 공기 한 모금은 그 어떤 보약보다 달다. 한라산의 겨울은 걷는 자에게만 허락된 숭고한 풍경이다. 🌄



겨울 제주, 1박 2일 여행 추천 코스

겨울의 제주는 유난히 해가 짧고 바람이 매섭다. 무리하게 이동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동선을 짜서 움직이길 추천한다.

📍 DAY 1. 동쪽에서 만나는 억새와 숲

- **오전** | 제주공항 도착 → 한라산 둘레길(또는 영실 코스)
Tip 한라산 등반이 부담스럽다면 천아숲길 등 둘레길에서 늦가을 단풍의 정취를 느껴보자.
- **오후** | 산굼부리
Tip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 방문하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억새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 **저녁** | 조천, 구좌읍 인근 숙소 휴식

📍 DAY 2. 남쪽 바다와 서쪽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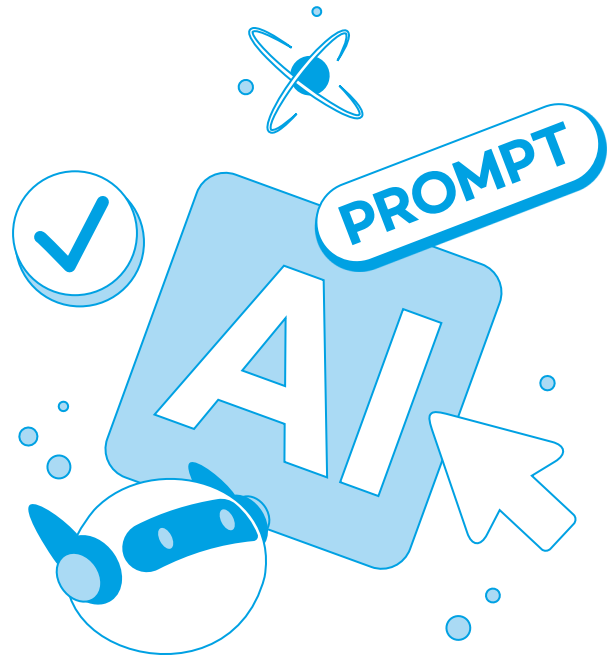
- **오전** | 모슬포항 이동 → 가파도
Tip 가파도행 배편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잦으니 사전 확인 필수.(신분증 지참 필수)
- **오후** | 산방산 탄산온천 혹은 인근 카페에서 몸 녹이기
- **저녁** | 새별오름
Tip 오름 정상은 바람이 강하다. 핫팩과 겹옷 그리고 밤길을 위한 손전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AI 시대 생존 기술, 잘 묻고 잘 쓰고 잘 거르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조
용히 바꾸는 든든한 도구가 되고 있다. 병원 예약을 대신 행겨주
는 챗봇,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웨어러블 기기, 일상
을 편리하게 정리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장년층에게 AI는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는 기
술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년층에게 낯설게만 느껴지
는 분야다. AI가 무엇인지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글. 편집실



Step 1

AI를 이해하는 첫걸음

AI란 무엇일까? 사람의 학습·추론·판단 능력을 컴퓨터가 흉내 내도록 만든 기술을 말한다. 다
시 말해, 인간이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기계가 ‘배우고’, ‘기억하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기술의 총체다. 과거의 컴퓨터가 미리 정해진 명령만 수행했다면 오늘의 AI는 스스로 패턴을
찾고, 새로운 답을 만들고, 상황에 맞는 선택까지 내릴 수 있다. 그 덕분에 검색, 번역, 건강
관리, 금융 상담, 영상 제작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AI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도
구’처럼 쓰이고 있다.

Step 2

AI를 읽는 힘, 용어 이해하기

AI가 점점 더 영리해지고 편리해질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AI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
떤 방식으로 대답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용어’를 익히는 일이다. 낯선 단
어들만 알아도 AI가 주는 답을 훨씬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얻는 속도는 놀랄 만
큼 빨라진다.

창작을 대신해 주는 생성형 AI	AI를 움직이는 한 줄 프롬프트	친절한 상담 친구 챗봇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AI다. 글 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며, 영상 스토 리까지 똑딱 만들어낸다. 잘 알려진 ‘챗 GPT’, ‘구글 제미니’, ‘네이버 클로바X’, ‘뤼튼’ 등이 대표적인 생성형 AI다.	“제주도 1박 2일 일정을 짜줘”, “이 문장 좀 더 부드럽게 고쳐줘”처럼 ‘AI에게 지시 하는 말’을 프롬프트라고 한다. AI는 사람 처럼 상황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기 때 문에 우리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쇼핑몰이나 은행 앱에서 ‘상담’을 누르면 “무엇을 도와드릴 까요?”라며 말을 걸어오는 그 친구가 바 로 챗봇이다.

Step 3

AI 초보를 위한 핵심 가이드

AI가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잘 부리고, 잘 가려내는 능력’ 즉 AI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을 키워야 한다. 조금만 다루어 보면, AI는 생각보다 훨씬 쉽고 편하고 재미있다. AI를 사용하
면 아주 유용할 세 가지 팁을 알려준다.

① 제대로 질문하기!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

AI는 우리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우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지 않은 질문 ✕

“부산 여행 일정 짜줘”

좋은 질문 ○

“부산 1박 2일 일정을 짜줘.
첫날은 해운대와 광안리 중
심으로, 둘째 날은 기장 쪽으
로 가고 싶어. 차는 없고 대
중교통을 이용할 거야.”

③ 재미있고 가벼운 활용부터 시작하자!

‘재미있게 시작하는 AI 입문’

AI와 조금 더 빨리 친해지고 싶다면, 가볍게 사주·운세·오늘의
운 같은 질문을 던져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 보자.

“2026년 재물운은 언제? 돈이 들어올까?”
“2026년 조심해야 할 점은 뭐야?”
“이번 주에 여행을 가려고 해. 조심해야 하는 날은 언제야?”

② 그림 만들어보기!

‘말만 하면 그림이 똑딱’

요즘 생성형 AI는 그림·캐릭터·사진풍 이미지도 순식간에 만들
어 낸다. 찾기 힘든 이미지가 필요할 때 AI를 이용해 보자.

생성형
프로그램

입력
프롬프트

만들어진
이미지

AI
뤼튼

“손녀가 좋아할 만한
귀여운 강아지 캐릭
터를 만들어줘. 초록
색 스카프를 하고 있
고, 웃으면서 달리는
모습이야.”



Gemini

“딸에게 줄 생일카드
에 넣을 그림을 만들
어줘. 풍선과 케이크
가 있는 따뜻한 분위
기의 그림, 밝은 색
감이면 좋겠어.”



Step 4

AI 활용의 마지막 체크리스트!

✓ AI도 틀릴 때가 있다, 사실 여부는 한 번 더 확인하자!

AI는 때때로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뉴스, 의학, 법률, 금전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공식 자료로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너무 그럴듯하면 의심해보자! 딥페이크 조심하기

요즘 AI가 만든 영상·사진·음성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특히 ‘돈’과 관련된 연락이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 ‘자녀나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송금을 요청’한다면? → 절대 그대로 믿지 말고, 먼저 전화나 문자로 직접 확인한다.

✓ 가능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않기

AI는 입력한 정보를 학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주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정보, 집 주소, 회사 주소, 신용카드 번호, 가족의 실명과 연락처 등은 입력하지 말 것!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실천 결의대회

중앙회는 지난 9월 20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와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환경정화 운동이다. 중앙회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180만 회원과 함께 하천·공원·도로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며 지속가능한 녹색 새마을운동을 확산했다.



새마을운동기록물 순회전

중앙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0개 초등학교에서 '새마을운동기록물 순회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공동체 정신을 배우도록 마련됐으며, 군내초·성환초·샘마루초·섬강초 등 유네스코 학교를 포함해 5,800여 명이 참여했다. 전시에는 새마을활동 사진전, 회의록,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이 소개돼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조명했다.

몽골 새마을운동 수탁교육

중앙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몽골 새마을운동 수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몽골의 자생적 새마을운동 기반 조성과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울란바토르새마을회의 요청으로 몽골 새마을회원 및 공기업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 추진 원리 강의, 역사관 견학, 분임토의 등을 통해 현지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호 사무총장은 "몽골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함께家 축제·지도자한마음체육대회

서울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10월 28일 왕십리광장에서 '우리는 한가족! 함께家 축제'를 열고 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 등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조동희 부녀회장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서울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새마을회(회장 김연포)는 지난 9월 18일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에서 '2025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5개 자치구 새마을지도자 3,000여 명이 참여해 새마을정신을 되새기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부산 김장 나눔·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11월 5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열었다. 부산시부녀회(회장 김선희) 주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새마을금고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새마을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배추 4,000포기로 김장을 담가 이웃에게 전했다. 이어 7일과 10일에는 대저생태공원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2025 하반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고 의류 120여 톤을 수집·판매했다.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대구 우간다 국제협력사업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 오모로(Omoror) 지역 부비(Buvi) 마을을 방문해 새마을세계화사업 3차년도 현장 점검 및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오모로 지역에서는 시멘트 우물과 곡물저장창고, 로컬마켓 준공식, 부비마을에는 보건소 약품·물품과 작은도서관 서가 및 도서를 기증했다. 또한 재활용 티셔츠 250벌과 친환경 정수기 30대를 전달했다. 최영수 회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협력을 위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벽화 그리기·해양쓰레기 집중수거

인천시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김학만)는 지난 10월 24~25일 계양구 효성2동에서 '회색 담장 위에, 청년이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문화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청년의 감성과 공동체 정신을 담아 담벼락을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한편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황일)는 지난 9월 25일 중구 선녀바위 일원에서 '인천새마을 푸른바다 비치코밍'을 열었다. 새마을지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를 수거·재활용하며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에 앞장섰다.



광주 한마음콘서트

문고 광주시지부(회장 김동노)는 지난 10월 28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제4회 새마을문고 한마음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달빛동맹을 맺은 문고 대구시지부와 전북·전남지부,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가 함께해 동서 화합의 장이 되었다. 시낭송·노래·댄스·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25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시민이 참여했다. 김동노 회장은 "문화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독서운동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동맹 강화에 새마을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지난 10월 30일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2025 대전광역시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리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5개 구청장·의장, 새마을가족 및 청년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우수사례 발표, 시장 특강, 청년 퍼포먼스,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영복 회장은 "청년과 함께 주민 중심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도 소식 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울산 더 멀리 가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

울산시부녀회(회장 김숙자)는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20명과 새마을부녀회 멘토 20명이 참여한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참가자들은 송편 빚기 등 명절 음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멘토와 정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 제천 한방바이오·원서문학관 관람

문고 세종시지부(회장 조철환)는 지난 10월 15일 제천을 방문해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관람하고, 시인 오택번 교수가 설립한 원서문학관을 찾아 문학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천등산과 의림지 일원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와 선인들의 물 관리 지혜를 배우고, 문고 제천시지부의 피서지문고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를 통해 고북저수지 피서지문고 운영 활성화와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 동티모르 국제협력사업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동티모르 시범마을에 방문해 2025년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양계장 및 비가람하우스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7월 한국 초청연수에 참여했던 4개 시범마을 주민과 공무원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마리아노 사비노 로페즈 부총리와 면담하고, 레퀴투라·셀로이 카라키 마을에서 장학금 전달 및 주민 간담회를 통해 새마을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자립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 국민독서경진대회·다문화가족 듀엣가요제

문고 강원도지부(회장 김찬윤)는 지난 10월 23일 횡성문화원에서 제45회 강원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우수작 수상자 6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식전에는 문고 횡성군지부가 육성한 초등학생 재능기부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강원도부녀회(회장 전미용)는 지난 9월 16일 실내체육관에서 제18회 강원다문화가족 듀엣가요제를 개최했다.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8개 팀의 열띤 무대가 이어졌다. 전미용 회장은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문고 충청북도지부, 좌구산 등반대회

문고 충청북도지부(회장 강정욱)는 지난 10월 29일 증평군 좌구산휴양림에서 도내 11개 시·군 문고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고감성! 가을에 물들고 번지다!’를 주제로 문고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문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욱 회장은 “좌구산의 아름다움 속에서 문고 회원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하루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남 2025 희망책방 프로젝트

문고 충청남도지부(회장 백지현)는 지난 9월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에 도서 500권과 생필품 5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도서 기증으로 보호대상자의 독서활동을 돕고 명절을 맞아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 도서는 인문·문학·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으며,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백지현 회장은 “책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따뜻한 도구”라며 지속적인 문화복지 나눔을 약속했다.



시·도 소식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이북5도



전북 어르신 동요대회·대학새마을 워크숍

전라북도부녀회(회장 강귀자)는 지난 10월 21일 정읍시 섬진강댐노인복지관에서 ‘빛나는 청춘, 다시 봄봄봄’ 어르신 동요대회를 열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했다. 강귀자 회장은 “음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회장 박민준)는 지난 9월 27~28일 전북자연환경연수원에서 ‘2025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6개 대학 120여 명이 참여해 새줄링, 안전·리사이클링 교육,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전남 영농봉사활동·새마을희망장터

직장·공장 전라남도협의회(회장 오인규)는 지난 11월 1일 광양시 진상면 대봉감 과수원에서 ‘농촌사랑 영농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시·군 협의회 회장단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대봉감 수확과 선별, 운반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오인규 회장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창덕)는 지난 9월 23~24일 서울 양천공원 새마을희망장터에서 전남 우수 농산물 직거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경북 대학새마을 농촌일손돕기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지난 11월 1~2일 이틀간 상주시 일대에서 ‘2025 새마을대학동아리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경일대·영남대·김천대 새마을동아리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김치 담그기, 줍깅(플로깅), 염색·족욕 등 봉사활동과 왕겨 뿌리기, 논밭 정리 등 수확기 농가 일손을 도왔다. 서중호 회장은 “청년과 대학생이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며 농촌의 어려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 10월 1일 창원시 명곡광장 일대에서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에 동참해 환경 캠페인과 줍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귀성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도내 18개 시·군과 읍·면·동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 새마을부녀봉사·한마음대회

제주도부녀회(회장 홍경애)는 지난 9월 25일 제주시 구좌읍체육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김정임 중앙부녀회장, 부녀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새마을부녀봉사상 시상식 및 2025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지 제주시 도두동부녀회장이 대상을, 이순심 제주시 건입동 부녀회장, 김진희 남원읍부녀회장, 이정심 대천동부녀회장이 봉사상을 받았다. 이어 열린 한마음대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사회 변화에 맞는 봉사활동 방향을 모색하며 결속을 다졌다.



이북5 평화안보 교육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9월 29~30일 이틀간 인천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 기원 및 안보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망향제와 연평포격 전사자 추모행사, 해병대 연평부대의 자매결연식을 진행하고 위문금 1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예초기·전동기 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성원 회장은 “잊혀가는 안보의식을 되새기고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새마을회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으로 실천합니다

무엇을?

하나, 관내 가정과 상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나라 사랑 실천 확산
둘, 주민 참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진행(현수막 게시, SNS 홍보)

어떻게?

- 왕십리광장에서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태극기 500여 개 무료 배부
- ‘태극기달기’ 문구 피켓을 들고 시민에게 직접 게양 독려
- 캠페인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SNS 게시, 참여 분위기 확산

Point!

- 태극기 나눔 캠페인을 주민참여형 나라사랑 실천운동으로 확산

#나라사랑 실천 #태극기 나눔 캠페인 #태극기 달기 운동

부산 금정구새마을회



책사랑 도서교환전

무엇을?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도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 교환전

어떻게?

- 독후감 한 편 당 2023년 이후 발간된 신간도서 무료 교환
- 2022년 이전 발간 책은 1인당 2권씩 무료 나눔

Point!

- 독서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및 순환까지 실천

#도서 문화 확산 #책 읽는 우리 마을 #자원순환

서울 노원구새마을회



이웃에게 전하는 한가위 정(情)

무엇을?

하나, ‘사랑의 송편 나누기’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 나눔
둘, 다문화가정과 주민이 함께 나눔 문화를 통해 세대를 잇는 공동체 형성

어떻게?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행복쉼터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송편 만들기 진행
- 송편을 19개 동주민센터로 배부, 동별 취약가정·다문화가정 전달

Point!

- 정성과 온정을 담은 송편을 통해 이웃사랑·세대화합·문화공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공동체 문화 조성

#이웃사랑 #세대간화합 #나눔문화확산

부산 연제구새마을회



어르신 독서골든벨 대회

무엇을?

마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독서골든벨 대회

어떻게?

- 책을 바르게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 독서 퀴즈를 푸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식 함양

Point!

-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

#어르신 공경 #세대 간 소통 #독서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

서울 강북구새마을회



추석맞이 송편빚기 체험활동

무엇을?

하나, 추석맞이 취약계층 돌봄 활동
둘,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활동 추진

어떻게?

- 강북구 13개동의 취약계층 150가구에 송편 및 전통음식 전달
- 강북구가족센터와 협업체 다문화가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 송편빚기 체험을 통해 다문화결혼이민자와 부녀회원 간 공감대 형성

Point!

- 다문화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링을 위해 연말 ‘이중언어스피치대
회’ 협업 구상

#공동체문화 조성 #온기 나눔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대구 북구새마을회



외국인 대학생과 함께하는 명절 음식 체험

무엇을?

하나, 외국인 대학생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둘, 명절 음식 체험을 통한 한국 이해와 정서 공감 확대

어떻게?

- 경운대 유학생들과 함께 송편, 전 등 명절음식 만들기 체험
- 추석의 의미를 배우고 한국 문화와 예절을 이해

Point!

- 유학생들이 직접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면서 한국 명절의 따뜻한 정을 체험
- 새마을지도자들이 멘토가 되어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교류의 장 마련

#공동체 문화 조성 #외국인 대학생 #좋은 이웃 만들기



인천 동구새마을회



한 입 '미소뽕뽕' 두 입 '행복가득'

무엇을?

하나, 제36회 화도진축제 Food-Zone 운영
둘, 지역 문화 홍보와 축제 분위기 조성 및 편의 제공

어떻게?

- 화도진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향토 음식 판매

Point!

- 3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먹거리 부스 간 테마존 구성
- 전통음식존, 청년푸드존, 지역상인존

#공동체 문화 조성 #문화 새마을운동 #화도진 축제

울산 북구새마을회



청년의 따스함, 발 끝으로 전해지는 사랑

무엇을?

하나, 청년들이 어르신을 위한 건강증진 및 정서적 안정 유도
둘, 세대간 교류와 공경문화 확산

어떻게?

-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을 족욕해 드리고 더불어 말벗이 되어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

Point!

- 어르신들의 발을 씻어드리고 로션을 바르며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

#공경과 섬김의 실천 #건강과 정서적 치유 #나눔 문화 확산

광주 남구새마을회



'남새나눔텃밭가꾸기' 고구마순 수확 나눔

무엇을?

하나, '남새나눔 텃밭가꾸기'를 통해 도심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둘, 농업의 가치를 배우며 도시민과 농촌공동체의 상생 기반 조성
셋, 수확한 작물을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모델 구축

어떻게?

- 공동텃밭 조성 → 친환경 재배 → 수확 및 포장 → 나눔 배부 단계별 실천
- 부녀회, 협의회, 청년이 함께하는 온정 나눔
- 줄기와 잎, 뿌리 등은 퇴비화하여 다음 작기 토양에 환원, 순환농법 실천

Point!

- 도시농업과 나눔복지의 결합형 사업으로 지역 내 자립 생태공동체 구현
- 세대 통합 봉사활동의 장으로 청년-어르신이 함께 경작·수확·배부

#탄소중립 실천 #생태 공동체 #도시농부

경기 안산시새마을회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무엇을?

지속가능한 자연 환경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어떻게?

- '입지 않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나누는 기쁨'이라는 구호
- 새마을가족이 기부하고, 나누고, 새로운 옷을 만나는 행사

Point!

-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림

#공동체 문화 조성 #숨은 자원 모으기 #탄소중립 실천

대전 서구새마을회



홀몸 어르신 삼계탕과 밑반찬 나눔

무엇을?

하나, 관내 홀몸 어르신 안부도 묻고 보양식 나눔
둘,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

어떻게?

- 대전 서구부녀회 지도자들이 모여 삼계탕 만들기
- 홀몸 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삼계탕과 밑반찬을 전달하며 안부 묻기

Point!

- 홀몸 어르신을 직접 찾아 뵙고 온정을 나누는 문화 확산
-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을 돕고 공동체 의식 제고

#이웃사랑 실천 #어르신 건강 증진 #정서적 돌봄

경기 군포시새마을회



차상위계층 돕기 밑반찬 나눔

무엇을?

2025 치맥데이 수익금 활용 밑반찬 나눔

어떻게?

- 치맥데일로 모은 기금을 활용해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 차상위계층 120개 가정에 밑반찬 전달

Point!

- 사랑의 밑반찬을 나누며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

#공동체 문화 조성 #밑반찬 나누기 #치맥데이 수익금 활용



경기 과천시새마을회



좋은 이웃 만들기(부림동네방네)

무엇을?

살기 좋은 이웃 만들기

어떻게?

-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에 과천 부림동협의회와 부녀회가 함께 참여
-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부림놀이터에 꽃을 심고 벽화 그리기

Point!

- 살기 좋은 이웃만들기 일환으로 부림놀이터 꽃 심기, 벽화 그리기

#함께 새마을 #좋은 이웃 만들기 #벽화 #꽃동산 가꾸기

충북 증평군새마을회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무엇을?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신 축하 잔치

어떻게?

-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초청해 생신 축하
- 가정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 전달 및 미용봉사 추진

Point!

- 미용서비스·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연계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증평군 청년새마을연대 #세대 간 교류 #지역 공동체

강원 강릉시지회



가뭄 극복 봉사활동 전개

무엇을?

지속된 폭염과 가뭄 피해를 입는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어떻게?

- 생활용수가 절실한 농가와 취약 가구에 급수 지원

Point!

- 새마을회가 이웃의 곁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공동체 나눔 실천

#공동체 문화 조성 #가뭄 극복 #강릉시지회

충북 음성군새마을회



새터민 정착·주민 화합 송편 나눔

무엇을?

하나, 새터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서적 유대 형성
둘, 나눔과 배려 문화가 확산하는 공동체 형성

어떻게?

- 추석을 맞아 '둥근 보름달'처럼 완전함과 화합을 상징하는 송편 빚기
-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서로 나눔

Point!

- 새터민과 지역 주민 간의 거리감 해소 및 가족과 같은 유대감 형성
- 이웃으로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인식 확산
-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 마련

#공동체 문화 조성 #새터민 가족 #좋은 이웃 만들기

강원 정선군새마을회



정담고 사랑담은 송편 나누기

무엇을?

명절을 맞아 홀몸 어르신께 송편 나눔 활동

어떻게?

- 부녀회원들과 직접 송편을 빚고 부침개를 준비
- 취약 계층과 홀몸 어르신께 음식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누는 시간

Point!

-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 확산

#공동체 문화 조성 #추석맞이 송편 나눔 #홀몸 어르신 사랑 잇기

충남 당진시지회



슈링클스 만들기 활동

무엇을?

하나, 청년새마을연대 활성화
둘, 지역공동체의 온정과 연대강화

어떻게?

- 탄소중립 실천 홍보 나눔용 슈링클스 만들기

Point!

- 청년새마을연대의 창의적 체험을 통한 새마을정신 제고

#청년연대 #문화새마을 #상생문화 조성



충남 금산군새마을회



보라데이 캠페인

무엇을?

하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둘, 공공의료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어떻게?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Point!

- 나눔과 존중의 문화 확대 및 가정폭력 예방

#지역연대 강화 #문화새마을 #보라데이 캠페인

전남 고흥군새마을회



친환경 세제 만들기

무엇을?

하나, 녹색생활 교육과 체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
둘, 친환경 교육으로 녹색 문화를 확산하는 공동체 조성

어떻게?

-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주민을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친환경 세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유도
- 홍보물 배부 및 교육 캠페인으로 녹색생활 확산

Point!

-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교육 실시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녹색공동체 조성

#녹색 생활 실천 #탄소중립 #친환경 세제

전북 임실군지회



탄소중립 실천 운동 캠페인

무엇을?

하나,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환경 캠페인 전개
둘,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하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

어떻게?

- 탄소 흡수를 위한 유휴지 나무 심기
-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캠페인 전개
- 자원재활용을 위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Point!

-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녹색새마을운동

#녹색 새마을운동 #나무 심기 #탄소중립 실천 운동

전남 해남군새마을회



사랑의 도시락 나눔

무엇을?

하나, 청소년들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응원
둘,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어떻게?

- 부녀회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재료를 준비해 샌드위치 제작
-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도시락 전달

Point!

- 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 한 끼와 함께 응원과 사랑을 직접 전달하는 실천 중심의 봉사활동
- 지역이 함께 청소년을 돌보는 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사랑의 도시락 #돌봄 공동체 #공동체 문화 조성

전북 순창군지회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길

무엇을?

하나, 마을 및 하천 주변에 꽃잔디를 심고 잡초를 제거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
둘, 자율적인 마을 가꾸기 실천으로 환경 의식 제고, 참여 확대

어떻게?

- 새마을지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봉사활동
-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통한 일상 속 실천 분위기 조성

Point!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새마을운동 모델 정착
- 함께 행동하며 나와 이웃 그리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 실천

#공동체 문화 조성 #정이 피는 꽃 길 #함께 가꾸는 꽃잔디 길

경북 상주시새마을회



추석 나눔 및 '대한민국 새단장' 발대식

무엇을?

하나, 추석과 APEC 정상회의 맛이 이웃돕기와 국토대청결운동
둘, 대한민국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셋,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기

어떻게?

- 80여 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새단장 발대식' 개최
-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함께 송편을 만들어 300여 가구 전달

Point!

- 시가지 캠페인 및 홍보 퍼포먼스 전개, 새마을 집중 청소 주간 운영
- 직접 만든 송편을 취약계층에 전달해 함께 나누는 공동체문화 확산

#공동체 문화 확산 #대한민국 새 단장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현장 클로즈UP 경북·경남

경북 청도군부녀회



어르신 문화체험 힐링나들이

무엇을?

하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힐링 문화체험 나들이
둘,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

어떻게?

- 어르신과 동행하여 따뜻한 정과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
- 맛있는 식사, 영화 관람 및 티타임을 통해 심신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 도모

Point!

-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실현
- 일상에서 벗어난 힐링형 문화 체험 제공

#어르신 힐링 나들이 #세대 공감 #따뜻한 온정 나눔

경남 양산시새마을회



복지관 무료급식봉사

무엇을?

하나, 세대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과 유대 강화
둘, 상호 존중 인식 고취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

어떻게?

- 지역의 어르신들이 찾는 복지관을 찾아 월 2회 급식 준비 및 배식 무료 봉사

Point!

- 무료 급식 봉사와 아울러 특식 배식을 위한 물품 또는 현금 지원

#공동체 문화 조성 #건강 새마을 #좋은 이웃 만들기

경남 남해군새마을회



해양쓰레기 ZERO 정화

무엇을?

하나, 바다 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둘, 해안가 절벽 바다 쓰레기 수거

어떻게?

- 어선과 부두 크레인을 동원해 절벽 해안가 해양쓰레기 운반
- 접근이 어려운 해안 구역을 중심으로 직접 쓰레기 수거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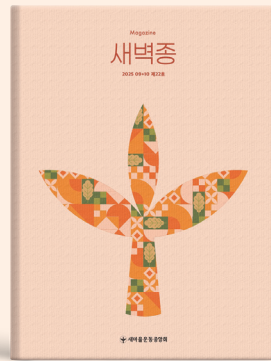
- 손길이 닿기 힘든 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생태계 회복
- 지도자와 지역 어민들이 함께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

#바다 생태계 보호 #환경 의식 확산 #해양쓰레기 ZERO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9+10월호 독자 의견



박순화

버려질 것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인천광역시부녀회의 모습에 깊게 감명받았어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전경옥

'책속에서 배우는 새마을운동의 가치'라는 글을 읽고 소개된 저서들을 정독해 봤어요.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되새기는 기회였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새마을정신의 확산을 통해 인류 보편의 행복을 이룰까를 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홍지영

'청년 새마을 독'을 잘 읽었어요. 청년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글과 사진이 조화롭게 편집됐고, 사진을 통해 현지에서의 활동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아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장미우

가을빛이 내려앉은 도시 정음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요즘은 날씨가 참 희한하게 흘러가는 듯해서 짧은 가을이 더 반갑습니다. 화사하고 알록달록한 가을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정음의 핫플레이스와 맛집도 궁금해졌어요.



QR코드 스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만족도 조사 참여 이벤트

당첨자 안내

〈새벽종〉 독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새벽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함	연락처 뒤 네자리	성함	연락처 뒤 네자리
장우익	3944	성락윤	0187
방윤희	0843	박계자	4459
김계태	4289	주진희	4515
김연주	2989	심은숙	0437
김정완	0776	유광열	1662
김인철	5337	강창규	7604
여윤연	8490	임성희	3070
이용선	1905	이지훈	2732
전유진	3095	황경연	2179
서종경	6717	김진관	8170

이벤트 경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풍성한 이야기와
값진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National Saemaul Leaders' Convention



11.18.(화) 부산 영화의 전당

주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부산광역시새마을회

후원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